



K-제약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순항'
04



Life

작품 감상·골프체험
백화점
문화공간으로
나



어디든 5분만 걸으면 정원이... 서울, 녹색빛으로 물들인다

6800억 투입, '정원도시 서울' 추진 비움, 연결, 생태, 감성 4가지 키워드 도심 숨통 틔우는 '열린공원' 조성 녹지길 코스, 수변 여가공간 마련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해 시내 어디서든 걸어서 5분 거리 내 녹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을 위해 생활권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시민이 걸어서 5분 안에 잔디, 나무, 꽃을 보는 정원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면적을 몇 평 늘리겠다는 도시계획은 계속 있어 왔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빈 땅이 없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의 양보단 질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원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중요해졌다"며 "그래서 선진국형 녹지 공간, 정원을 만든다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시는 도심 한가운데를 비워내

도시의 숨통을 틔우는 열린 정원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송현동 부지에는 이견희미술관 외 그 어떤 시설물도 들어올 수 없게 해 2만6604㎡ 크기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보존한다. 미군이 떠나 비워진 용산공원의 242만6748㎡ 규모 공간은 다양한 나라의 대표 정원을 선

보이는 '세계정원'으로 조성해 도심 속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국회대로, 영동대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구간은 기존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가꿔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의 들레길과 시내 산자락길, 하천길, 골목을 촘촘히 이어 녹지가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시내 전체를 녹색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먼저 시는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폭 50~70m의 선형녹지공원을 만들어 종로 앞부터 남산까지를 녹지길로 잇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인근 지역과 결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높이 제한을 없애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녹색길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초록길 286.6km를 신설해 2026년까지 총 길이 2063.4km의 녹지길을 완

성할 예정이다. 서울둘레길은 코스를 확대하고 스카이라이프, 데크, 전망대,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산과 하천, 지천변을 이용한 생태정원을 조성한다. 남산에는 전국 팔도의 대표 수종을 이식해 '야외 숲 박물관'을 짓는다. 안양천, 중랑천을 포함 17개 하천구역에는 수목과 초화류를 심어 수변 여가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의 감성과 문화를 담아낸 계절별 화초정원 가꾸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권역별 거점공간에는 대규모 특화정원 6개가 생긴다. 하늘정원에는 계절꽃, 창포원에는 붓꽃과 창포를 테마로 한 '주제정원'을 설치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수시 논술전형, 대학별 논제 유형 파악해야” 서울컨트리클럽, 골프 유망주에 장학금 전달

인문, 사회교과 연계 지문 언어논술 자연, 수리·과학 모두 치르는 대학도

2024학년도에는 전국 대학에서 수시 모집 인원 34만62명 중 1만1161명을 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전체 수시 인원의 3.28%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부산대, 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으로 꼽힌다.

인문계열 논술은 주로 언어(인문)논술 형태를 취하며 몇 개 지문을 읽고 요약, 비교, 평가하거나 특정 주장을 지지·비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지문 주제는 사회교과와 연계되는데 주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의 개념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조금 더 수

월하게 풀이해 낼 수 있다.

모집단위나 대학에 따라서 도표나 그래프를 지문에 포함해 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은 사회문화 과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다.

상경계열은 조금 더 수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건국대, 경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수학 I, II와 확률과 통계의 개념을 활용한 수리논술 문항을 포함한다. 이 중 연세대만 인문계열 전 모집단위에서 수리논술 문항을 포함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만 치르는 대학, 과학논술만 치르는 대학, 두 가지 모두를 치르는 대학으로 나뉘며 대부분 수리논술만을 치른다.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함께 치르는 대학 중에서도 경희대, 아주대, 연세대(미래)는 의약학관련

모집단위에서만 과학논술을 함께 치르며, 연세대는 자연계열 전 모집단위에서 과학논술을 치르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과학논술을 없애고 수리논술만 치를 예정이다. 수리논술도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개념을 출제되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개를 통해 답안을 서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평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수학 공식을 증명으로 유도해 보거나 수능 문제를 풀이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논술은 경쟁률이 높아 합격 가능성이 낮은 전형으로 꼽히지만, 대학의 출제기도, 요구하는 답안 작성 방법을 잘 안다면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중·고등학생 8명 선발, 훈련 등 지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이사장 조갑주)이 지난 5월 20일 골프 유망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은 한국 최초로 설립되어 우리나라 골프 보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골프 대중화에 기여해 왔다. 금번 장학선발은 클럽 정관의 목적사업인 골프의 보급·발전 및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함에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에 집중하고 인성을 갖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한민국 골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장학생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지원한 학생 중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통해 중, 고등부 학생 8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 한양파인CC 연습장 1년 이용권, 서울·한양CC 회원제 정규홀 9홀 라운드 이용권을 부상으로 지급하여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골프 기량을 지속적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여의도 용적률 1200%... 높이 규제 폐지

금융중심지 내 초고층 건립 가능해져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한다.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여의도 일대 112만586㎡ 규모 부지다. 계획안은 동여의도 부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하고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1200% 이상 완화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25일(木) 음력: 4월 6일

수도권 날씨 15~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5:16 | 해질 19:42

지역별 날씨: 연천 11/26, 동두천 12/27, 가평 11/27, 파주 11/26, 서울 15/27, 양평 13/27, 인천 15/23, 수원 15/26, 용인 15/26, 평택 13/28, 백령도 13/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SSG 선발진 '마지막 퍼즐' 될까...엘리아스, LG전서 데뷔
▲배지환, 나홀만에 멀티히트...주루에 선 아쉬움 /사진 뉴스1

▲롯데 "토티넘 새 사령탑에 슬롯 페예노르트 감독 유력"
▲테니스 백다연, 빌리진킹컵 하트 어워드 수상...한국 선수 최초



▲류현진, 수술 후 첫 불펜투구...“마운드가 그리웠다” /사진 뉴스1
▲“더블 겨냥” 울산·'최다 우승' 전북·수원...오늘 FA컵 16강